



한미 첨단산업·청정에너지 협력 확대, 대미 투자기업 지원 논의

-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 첫 방미(4.10-12) 결과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4.10.(수)~12.(금)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하여 지나 러몬도(Gina Raimondo) 상무장관, 제니퍼 그랜홀름(Jennifer Granholm) 에너지 장관과 첨단산업·청정에너지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우리 기업의 주요 투자 지역 상·하원 의원*, 무역·통상을 담당하는 세입위 의원** 등을 만나 우리기업의 원활한 투자를 위한 지원을 당부하였다.

* (테네시) 마샤 블랙번 상원의원, (조지아) 버디 카터 하원의원, (인디애나) 루디 야킴 하원의원

** 얼 블루머나워 하원의원(세입위 간사)

금번 방미(訪美)는 안 장관 취임 후 첫 미국 방문으로서 작년 4월 한미 정상 회담을 통해 강화된 양국 협력 모멘텀을 발전시키기 위해 산업·에너지를 담당하고 있는 미(美) 상무부, 에너지부를 만나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우선, 러몬도 상무장관과는 제2차 한미 공급망·산업 대화(SCCD)의 상반기 개최를 통해 반도체 등 첨단산업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다자체제에서의 양자 협력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아울러 작년 8월 캠프데이비드에서 한미일 3국 정상이 합의한 한미일 산업장관회의 제1차 회의의 상반기 개최에도 합의하였다. 또한 무역구제 이슈 등 기업들의 통상 현안 해소를 위한 노력을 전개하는 한편, 미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반도체법 관련 우리 측 관심사항을 전달하고, 우리 기업의 미국 내 활동 관련 애로사항에 대한 미 상무부 차원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였다.

에너지부 장관과는 작년 4월 이후 1년 만의 장관급 회담을 가졌으며, 동 계기에 한미 간 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위한 장관급 협의체 활성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수소, 재생에너지, 원전 등 포괄적인 청정에너지 협력을 논의하였다.

한편, 안 장관은 대미(對美) 투자 중인 우리 기업에 대해 차별없는, 충분한 보조금 및 세액공제 혜택을 위해 미(美) 행정부 및 의회에 협조를 당부하였으며, 우리 기업의 미국 내 공장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인력의 적기 파견을 위한 비자 문제 해결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안 장관은 “향후 상무부·에너지부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양국 간 협력 모멘텀을 강화해 나갈 것”이며, “특히 한미(韓美) 경제협력의 주역인 우리 기업들의 원활한 대미(對美) 투자 및 이익 극대화를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하였다.

| | | | | | |
|------|-------|-----|-----|-----|----------------|
| 담당부서 | 통상정책국 | 책임자 | 과 장 | 안홍상 | (044-203-5650) |
| | 미주통상과 | 담당자 | 사무관 | 김윤희 | (044-203-5651) |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